

21장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1)

21-22장에서는 제사장과 그들이 먹는 음식에 관하여 가르친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함에 관하여 가르친다. 첫째, 제사장의 가족의 혼인과 죽음, 둘째, 제사장과 제물에서 발견되는 흠과 결점, 셋째, 부정한 중에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차대구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제사장 가족의 혼인과 사망 (21:1-15)

흠이 있는 제사장의 경우들 (21:16-24)

거룩한 음식에 잘못 참여하는 경우들 (22:1-16)

흠이 있는 제물의 경우들 (22:17-25)

제물의 가족들 (22:26-31)

“나 여호와와는 거룩함이니라”(21:8, 15, 23; 22:9, 16, 32)는 말이 위의 구분과 대체로 일치하면서 각 부분을 연결시킨다.

1. 제사장의 슬픔과 혼인에 대한 규정 (21:1-9)

1) 장례에 관한 규정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가까이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대제사장의 봉사는 하루라도 끊임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음식 제사를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21:6).

2) 혼인에 관한 규정

제사장은 직무 때문에 혼인할 때에도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과 혼인하지 않게 하였다. 제사장의 혼인에 관한 규례를 말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직분은 거룩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선언하셨다(8절).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9절에서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에 만연한 이교 제사에 참여하여 행음하면 화형이라는 극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방 풍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다.

2. 대제사장의 슬픔과 혼인에 대한 규정 (21:10-15)

1) 장례에 대한 규정

대제사장은 장례와 혼인에서도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인척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게 하였다.

2) 혼인에 대한 규정

혼인의 경우도, 제사장은 이혼녀와 부정한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과부와의 혼인도 금지되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와만 혼인하도록 하였다.

3. 제사장의 직무를 막는 육체적인 결함들 (21:16-24)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불구가 있으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장의 육체적 장애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장애와 연결된다(21:18-20//22:20-24).

1) Loe M. Sprinkle, *Leviticus and Numbers*, 142, 148.

그렇지만 그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제물을 소득으로 취할 수는 있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의 예를 열거한 후에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주는 성물은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그들이 성막이나 제단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묵상과 실천:

흠이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케 되는 일도 피해야 되었고 혼인하는 대상도 부정한 사람을 피해야 되었으며 신체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었다.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온전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제사장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대제사장의 거룩함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제사장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사명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었다(말 2:8-9).

제사장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봉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제사장뿐 아니라 제물도 온전해야 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히 7:26).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아들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 5:8-10).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님을 경건하고 유능하게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신다.

2/장 익힘 문제

1. 제사장이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6절)
2.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분사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3. 대제사장의 규례는 제사장의 규례보다 더 엄격하였는데 시체에 관하여는 누구의 시체라도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11절)
4. 위임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12절)
5. 아론의 제사장들 중에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까? (17, 21절)
6. 아론의 자손 중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으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17-23절)